

# 어획량 반토막...제철 갯벌 낙지 어민 한숨

전남 작년부터 생산량 급감  
신안 한마리 7000원 위판  
금어기·낙지 목장 조성 등  
전남도 자원량 늘리기 총력

전국 생산량의 60% 안팎을 차지하는 낙지 주산지 전남 어민들의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다.

무분별한 남획 등 영향으로 몇 년간 어획량이 폭 떨어진 가운데 올해는 그 조차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.

17일 전남도와 신안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낙지 생산량은 3442t으로 지난 2008년(5477t)에 비해 37.2%나 감소했다. 낙지 생산량은 ▲2013년 2984t, ▲2014년 3181t ▲2015년 4254t 등으로 늘어났다가 지난해부터 급격히 줄어들었다.

10년 전과 비교해 40% 가까이 낙지가 덜 잡히는 상황에 올해는 더 좋지 않다는



갯벌에서 낙지잡이를 하고 있는 어민. <신안군 제공>

갯벌에서 낙지잡이를 하고 있는 어민. <신안군 제공>

신안군 관계자는 “올해 초부터 어획량이 눈에 띄게 줄어 어민들 사이에는 작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반응이 나온다”고 말했다.

신안 수협 위판장에서 낙지는 이미 1마리에 6000~7000원의 ‘금값’에 거래되고

만, 어획 부진이 이어지면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고 수협 측은 예상했다.

지방자치단체들은 남획, 어린 낙지(일명 꽃 낙지) 포획 등이 자원 감소의 주된 요인인 것으로 보고 금어기 지정, 낙지 목장 조성 등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.

일부 어촌계에서는 1개월인 금어기를 3개월까지 자율적으로 연장하기도 한다.

전남 해양수산과학원은 2014년부터 신안, 무안 해역에 낙지 목장 6곳, 36ha를 조성한 데 이어 올해 순천, 함평 해역에 13ha, 2018년까지 신안에 40ha를 확대할 방침이다.

낙지 목장 사업은 낙지 산란기인 3~6월 암수 낙지를 수조에서 교접시킨 뒤 갯벌에 방사해 번식시키는 방식이다.

전남도 관계자는 “자원량을 늘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남획 자제 등 자발적인 실천이 중요한 만큼 어업인들이 동참해야 한다”고 당부했다.

/박정욱기자 jwpark@kwangju.co.kr /신안=이성진기자 sslee@



함평 난 대제전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된 난을 살펴보고 있다.<함평군 제공>

## 함평군 22~22일 ‘대한민국 난 대제전’

대통령상 등 120여점 시상

‘2017 대한민국 난 명품 대제전’이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함평군 함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다.

이번 행사는 한국 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난 문화 대중화,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, 함평군이 주최하고 대한민국난명품대제전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치러진다.

행사 주제는 ‘국향 속에서 난초를 마주하다’로, 한국 출산 450여 점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다.

대통령상인 대상 수상자에게는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상과 환경부장관상, 산림청장상 등 총 120여점을 선정해 시상한다. 참가 및 출품 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, 함평군이 주최하고 대한민국난명품대제전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치러진다. /함평=황운학기자 hwang@



함평군 주포권역 다목적센터 캠핑장은 예약자가 몰릴 정도로 인기다. <함평군 제공>

## 함평군 주포권역 다목적센터 인기

작년 10월 개관...객실·오토캠핑장 등 예약 몰려

함평군 주포권역 다목적센터가 관광 명소로 입소문이 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.

18일 함평군에 따르면 총 36억6300만 원을 들여 지상 2층 연면적 577.1㎡ 규모로 지난해 10월 준공한 주포권역 다목적센터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.

다목적센터 준공 이후 현재까지 방문한 관광객은 6184명으로 64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게 함평군 설명이다.

특히 객실과 오토캠핑장의 경우 두 달 뒤까지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.

다목적센터는 1층에 단체 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는 다목적실과 석양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북카페가 조성됐고 2층에는 단체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객실(6개)을 갖췄다. 야외에는 오토캠핑장 18면 등이 조성돼 있으며 인근 돌머리해수욕장과 생태체험관인 양서파충류생태공원 등으로 ‘생태체험학습 관광코스’로도 이용할 수 있다.

함평군 관계자는 “친절한 서비스, 깨끗한 시설 운영으로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/함평=황운학기자 hwang@



등산객들이 하트해변이 보이는 선왕산 전망대로 향하고 있다. <신안군 제공>

## 신안 선왕산서 전국 섬 등반대회

28일...난타 공연·시금치 캐기 체험 행사도

전국 섬 등산대회가 오는 28일 신안군 비금도 선왕산에서 열린다. 앞뒤로 막아선 산줄기가 없어 탁 트인 풍광, 섬과 바다가 안마당으로 들어온 듯한 장관을 만날 수 있는 기회다.

비금도는 프로바둑기사 이세돌의 고향이면서 국내 최초로 천일염을 생산한 곳이다. 코스는 비금도 상암 주차장에서 출발, 그림산 정상(1.7km)~죽치 우실재(2.4km)~선왕산 정상(3.7km)~하트해변을 지나는 5km 구간으로 3시간 정도 걸린다.

걷다보면 다도해의 울창한 숲이 펼쳐지는 수많은 섬들이 발 아래로 펼쳐지는 섬산행의

독특한 풍광을 고스란히 체험할 수 있다.

하트해변은 한국관광협회가 ‘가고싶은 해수욕장’으로 선정된 명소로, 베스트 촬영지 55선에 꼽히기도 했다. 신안군 홈페이지(www.shinan.go.kr)를 통해 접수하면 되고 천일염 등 기념품을 나눠준다. 난타 공연이 식전 행사로 치러지며 시금치 캐기 체험, 막걸리 시음 기회 등도 마련된다.

신안군 관계자는 “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를 만들기 위해 목표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등산로를 정비하는 등 다도해 대표 명산으로 가꿔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

/신안=이성진기자 sslee@

## 단풍·낙조 눈부신 영광으로 오세요

郡, 가을 여행주간 맞아 불갑산·칠산타워 명소 홍보

영광군이 가을 여행주간을 맞아 불갑산과 칠산타워 등 지역 관광지를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.

영광군이 내세우는 대표적 가을 관광지는 불갑산과 칠산타워가 꼽힌다.

불갑산 등산로는 단풍 명소로, 불갑사 입구부터 불갑사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산책코스를 따라 여유롭게 걷다보면 화려한 단풍을 감상할 수 있다.

영광 칠산타워는 가을 바다와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명소다.

전남에서 가장 높은 111m 높이로 3층

전망대에서는 칠산바다 너머로 타오르는 노을 풍경을 장관이다.

백수해안도로(16.8km)를 따라 펼쳐지는 기암괴석·갯벌·석양은 가을철 꼭 봐야할 드라이브 코스다.

영광군은 나들이객들을 위해 목재 데크로 산책로(2.3km)를 조성,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고 ‘영광군 방문 인증샷’ 올리기 이벤트(10월 21일~11월 5일)도 진행, 심사를 거쳐 굿비와 모스잇 송편을 나눠준다.

/영광=김민석기자 mskim@

## 무안군의의회 27일까지 9일간 임시회

무안군의의회가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.

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, 집행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이는 한편, ‘무안군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’, ‘무안군 가족사육제도에 관한 조례 일부개

정 조례안’ 등 12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. 한편, 무안군 학생 20여명은 최근 무안군의의회를 방문, 지방 의회 역할과 필요성을 체험했다.

이동진 무안군의의회 의장은 “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심사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/무안=임동현기자 jdh@

## 상무지구 상가 매매

시청 1분. 금융가대rob

현대아파트 후문 앞

8층 중 4층 (45평)

내부개끗 / 주차 가능

보 2천 월 100만

→ 매가 1억9천 (용7천)

직매 010-6670-9800

## 수기동 상가 매매

천변로 전망최고

20층 중 6층

45평 (주차완비)  
고급시설 (리모델링 5천만투자)

보 1천 월 60만

매가 9천8백 (용5천)

직매 010-6670-9800

## 경매 (주)대신경매

1) 동구 총창로 (4층 상가건물)  
토지 215평 건물 157평  
금남로 4가역 1분  
(대형 주차장있음)  
감정가 11억 → 최저가 8억8천

2) 광산구 월곡동 (상가주택)  
토지 51평 건물 134평  
감정가 3억7천 → 최저가 2억6천

3) 금남로 16층 (상가건물)  
토지 488평, 건 6,000평  
감정가 251억 → 최저가 140억

4) 동구 서석동 (주택)  
토지 153평 건물 50평  
서석초, 동구청 1분 (조선대 3분)  
감정가 4억9천 → 최저가 4억9천

5) 나주 경현동 (4층 상가 주택)  
토지 600평 건물 411평  
금성산 산책로 위치  
감정가 17억7천 → 최저가 9억9천

6) 전주시 완산구 전동 (3층 상가건물)  
토지 268평 건물 528평  
한옥마을 인근 (월세 1천만 이상 예상)  
감정가 40억 → 최저가 40억

## 경매교육

1) 기초이론반 (무료)

▶ 매주개강 (오전반,오후반)  
경매 기초 배우실분

2) 실전반

▶ 매주개강 (오전반,오후반)  
경매기초 + 실전경매

3) 경매 투자반

▶ 매주개강 (오전반,오후반)  
(특수경매, NPL부실채권)  
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 
입찰부터 매매임대,  
개발까지 원스톱 진행

전문직업 컨설팅반  
(프리 1년반)

(무료제공)  
경매교육, 컴퓨터, 책상

경매 입찰부터 매매까지  
경매컨설팅  
직업으로 하실분  
공공사무실 사용하실 분  
010-6670-9800

010-7384-7800

010-6670-9800